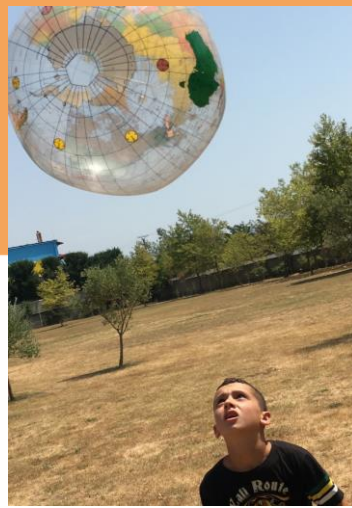


“행복하여라, 마음이
깨끗한 사람들! 그들은
하느님을 볼 것이다”
(마태 5,8)

예수님의 참된 행복

부분적으로는 제자들이
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
되풀이 한 것이었어요;
그런데 마음이 깨끗한
사람들이 주님의 산에
올라가는 것 만이
아니라 하느님을 보게
될 것이라는 것은 **처음
듣는 것이었어요.**



그렇게 큰 것을 얻을 만한 순결의 가치는 무엇인가요?

우선, 예수님에 따르면, 최상의 정화
방법이라는 것이에요. 영혼을
깨끗하게 하는 것은, 의례적인 훈련이
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..

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말들과는
달라요.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
계세요.
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
들어오시고, 그 분께서 일하시도록
놓아두면,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
하시므로 마음이 깨끗하게 해
주세요.



아무튼 순결은 생활한 말씀, 결실이에요,

만일 마음이 하느님과 그 분
가르침 안에 있지 않으면 떨어
질 수 있는 **애착으로부터**
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모든
예수님 말씀의 결실이에요.

애착은 사물, 피조물과 관련이
될 수 있어요. 하지만 마음이
하느님께 향해 있으면 모든
것은 사라져요.

centro.rpu@focolare.org

“행복하여라, 마음이
깨끗한 사람들! 그들은
하느님을 볼 것이다”
(마태 5,8)

무엇이 내가 순결을 살 수 있도록
도와줄까요?

하루 중에 예수님, 하느님께
시편의 기도 “**주님. 저의
행복 당신밖에
없습니다!**” 를 반복하는
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
것이에요.

특히 우리의 마음이 어떤
이미지들, 느낌들 그리고
좋은 시각을 가리고 우리의
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
열정에 끌려 갈 때 그것을
반복해 보아요.

특정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,
특정 TV 프로그램을 따르고,
특정 이미지 나 비디오 클립을
보는 경향이 있나요?

아니, “주님. 저의 행복
당신밖에 없습니다” 라고
합시다. 그 것이 하느님께
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
재 선언하며 우리 자신으로부터
나오게 하는 첫 걸음이 될
것이에요.

**그렇게 하여 우리는 순결을
얻게 될 것이에요.**

**생활한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
우리를 자유롭게 순수하게
해요.....**

성경에 나오는 "마음"은 지능과
의지의 가장 깊은 거처이기
때문에 우리의 의지, 우리의
내면 모두를 거룩한 불로
정화하는 것은 사랑이에요.

... 하느님을 볼 것이다

매번 새로 획득한 이 순결의
결실로서 하느님을 " 볼
수"있어요.

**즉, 우리 삶과 역사 속에서
그분의 활동을 깨닫고, 그
분의 목소리를 듣고, 그 분이
계신 곳, 가난한 이들, 성체,
그분의 말씀, 형제적 나눔,
교회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
알아 볼 수 있어요.**

이 것은 " 영원토록« 직접 볼
수 있을 때까지 ' 믿음
안에서 걸어 가면서 아직 볼
수는 없지만 " 하느님의
현존을 미리 맛보는
것이에요.

